〈인문사회계열〉

문제지

	학 교 명	
	성 명	
	수험번호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의고사

□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일 시	배 점
3	2017. 6. 10.(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를 정확히 명기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볼펜, 사인펜 사용 가능. **연필, 샤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 혹은 그런 작품을 가리킨다. 패러디의 어원은 반대 노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로데이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등장할 만큼 그 기원이 오래된 용어이다. 서양에서는 히포낙스의 시가 그 시초로 전해지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도 많은 작가에 의해 패러디되었다. 우리 문학도 그 연원을 고대 시가에서 찾을 수 있다. 「구지가」와 유사한 통사 구조로 지어진 「해가」를 패러디로 볼 수 있으며 향가를 거쳐 시조에서도 그 사례가 확인된다.

패러디는 왜 하는 것일까?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읽히고 다시 해석된다. 특히 독자가 문학 작품의 주제에 동의할 수 없거나 다른 관점을 지닐 때 독자는 자신만의 시각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다시 쓰고자 한다. 패러디는 창조적 재구성이지만 그 기본 태도는 비판 정신이다. 한편 패러디는 원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작 방법이기도 하다. 원작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고 잘 알려진 작품일수록 패러디는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고 독자의 주목을 받기 쉽다.

패러디는 원작과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영향, 모방, 심지어 표절과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으로 패러디는 원작과의 공통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한다. 작가는 원작의 제목, 소재, 시어, 문장, 통사 구조 등을 활용하며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원작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해당 작품을 패러디로 읽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패러디는 원작과의 (①)도 강조한다. 작가는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재구성한다. 이로 인해 원작과 패러디 사이에 (①)가(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①)는(은) 패러디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김춘수의 「꽃」을 다시 쓴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는 이러한 패러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가)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금잔화, 작약, 포인세티아, 개밥풀, 인동, 황국 등등의
보통 명사나 수 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고 그는
그대로의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빈칸 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유추한 후, 제시문을 활용하여 ①이 패러디에서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600±30자)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 중 인류의 삶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이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 이상 상승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양으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203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온 상승으로 해충과 열대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연이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나)

독일의 철학자 요나스는 "네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진정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책임의 명법(明法: 분명한 법칙)을 제시하였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나스의 입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다)

미세먼지로 덮인 뿌연 하늘이 점차 일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처럼 직접 미세먼지를 막거나 거르는 제품뿐 아니라, 미세먼지 탓에 문도 못 여는 날이 길어지자 의류 건조기도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당 가전제품을 갖추려면 중산층 이상의 경제 여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한 취약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라)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계층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난다. 이에 국가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즉 복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고, 아래 <보기>를 도입부로 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시오. (600±30자)

<보기>

환경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입장은 발생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특히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문명이 제기하는 환경 문제는 지구적인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윤리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는 … 임진왜란이 있은 이후로는 온갖 법도가 타락하고 모든 일이 어수선하였다. 군문(軍門)을 자꾸 증설하여 국가 재정이 탕진되고 토지제도가 문란해져서 부세(賦稅)의 징수가 편중되었다. 재물이 생산되는 근원은 힘껏 막고, 재물이 소비되는 길은 마음대로 터놓았다. …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병폐 아닌 것이 없다. 지금에 와서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뜻있는 선비가 팔짱끼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나)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은 농민 생활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이들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으로 농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여 토지 제도의 개혁을 적극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익은 『곽우록』에서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한 호(戶)의 영업전(永業田)으로 하여, 당나라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한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구상은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지 10결(結)에서 1결을 공전(公田)으로 삼아 농부에게 조력(助力)토록 하고 세금을 별도로 거두지 않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 군포(軍布)의 법을 없애고 9부(賦)의 제도를 정리하여 백성의 역(役)을 크게 고르게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

현재 국가의 큰 폐단은 가난입니다. 이 가난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중국과 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영남의 면화와 호서의 모시, 서북의 실과 삼베를 비단과 담요로 바꿀 수 있고, … 배와 수레, 가옥, 집기와 같은 이기(利器)에 관해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의 도서(圖書)를 국내로 들여오게 할 수 있으므로 조선의 풍속에 얽매인 선비들의 편벽되고 고루하며 좁은 견해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뜨려질 것입니다. … 저는 중국의 흠천감(欽天監)에서 역서(曆書)를 만드는 서양 사람들이 모두 기하학에 밝고 이용후생의 방법에 정통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관상감의 한 부서의 비용으로 그들을 초빙하여 근무하게 하고,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그들에게 보내 천문의 운행, 농상(農桑), 의약, 벽돌 제조, 가옥과 성곽의 축조, 수레를 통행시키고 배를 건조하는 방법 등을 학습하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알맞게 쓸 인재가 배출될 것입니다.

(라)

조선의 문명과 국력의 향상을 위해 학자들은 조선을 알고자 했고,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근거하여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 고조선에서 고려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이종휘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에서도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관심을 진작하였다. 산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지리지와 지도도 편찬되었는데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이 그것이었다. 한글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해져 우리말의 음운을 연구한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유희의 『언문지』 등 많은 연구 서적이 나왔다.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18세기 조선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그 학문의 출현 배경 및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600±30자)